치킨·PC통신… 오늘을 만든 '작고도 거대한' 장면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사소한 것들의 현대사

김태권 외 지음

치킨, 피시통신, 개인정보, 삼성휴대폰, 기아차, 베스트셀러, 잡스와 애플, 봉준호 VS 박찬욱….

'오늘의 우리를 만든 작고도 거대한 36가지 장면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사소한 것들의 현대사'를 보면 지나온 시절의 풍경이 그려진다.

사실 우리의 현대사는 그렇게 밝지 않다. 분단과 전쟁, 독재와 국가폭력, 학살 등으로 점철돼 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 또한 달라지지만 우리의 역사는 대개 크고 무거운 이미지로 침윤돼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사소한 것'이라는 프리즘으로 들여다보면 쉽고 재미있게 현대사를 접근할 수 있다. 사소한 것의 키워드에는 '탈모'도 있고 '생리대 광고' 등도 들어 있다.

책은 지난 1988년부터 축적된 '한겨레' 아카이브를 활용해 각계 전문가 19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김태권 만화가를 비롯해 강나연 '허프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 이은희 과학 저술가 등이다. 웹소설 기획사 팩트스토리가 기획해 지난해 5월붙 올해 3월까지 '한겨레'에 연재된 '시간의 극장'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했다.

책은 한마디로 36가지 키워드에 관해 쓴 현대사 콘텐츠다. 무엇보다 소수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이기도 하다. 그 예로 생리대 광고, 화장품 광고 변화를 통해 여성 인권 변화를 주목한다.

키워드들은 모두 4개의 카테고리, 즉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로 세분화돼 있다.

'치킨'은 문화 부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통닭은 충격이었고, 치킨은 힙했다라"는 문구는 강렬하게 지난 시절을 소환한다. 낯익은 70년대 풍경 가운데 얼큰하게 취한 아버지가 누런 봉투를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있다. 봉투에는 치킨이 들어 있었다. "요리칼럼니스트 김학민씨는 '요리 과정이 복잡한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요리가 다였던 시절 간편한 조리법의 통닭이 등장한 건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한겨레 'esc'에 실린 전기구이 통닭기사다.

또한 전설의 투수 김태원이 차린 치킨집이 망한 일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준다. 김태권 만화가는 소수의 업체가 입맛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맛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피시통신'에서는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등이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피시통신 배경 작품으로 히트를 한 영화 '접속', 피시통신에 연재된 글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 '엽기적인 그녀'는 초창기 사이버페이스 문화를 보여준다.

정치 부문에는 '그들이 꿈꾼 세상의 이름'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등의 정치인들이 나온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국제 정치인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빌리 브란트, 지미 카터, 프랑수아 미테랑 등 온 세계가 '김대중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사실 등이 소개되며, 김대중은 "서구가 아닌 아시아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을 견지한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 부문은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의 가려진 목소리에 주목한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 가려진 실상은 오늘의 경제 상황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과거 '잊을 만하면 물난리 나던 동네'였던 강남의 아파트는 교육열, 자산가치 기대감으로 폭등했다.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의 기회를 박탈한 것에 다름아니라는 관점이 눈에 띈다.

'에스엠과 이수만'은 한류 중심에 있는 케이팝이 편견에 맞선 결실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스타 시스템이 획일화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 시스템이 케이팝을 완성했다는 시각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지막 사회 부문에서는 성희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촉발했던 신 교수 사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던 고대 이대축제 난입 등을 다루고 있다.

〈한겨레출판·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늘 우리의 역사를 만든 것에는 '치킨', '피시통신' 등과 같은 작지만 영향력 있는 장면들이 있다.

파괴자들

정혁용 지음

소설은 K에게 걸려온 오랜 동료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전쟁 용병으로 전 세계를 누렸던 안나는 부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동료가 5년 만에 부탁의 전화를 걸어왔다. K는 답한다. "어디로 가면 되지?"

레이먼드 흡입력과 켄 브루언의 시니컬한 유머 감각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정혁용 소설가. 지난 2009년 계간 '미스터리' 겨울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로 등단한 정 작가는 이전 작품 '침입자'를 통해 작가 특유의 입담과 필력을 자랑했다.

이번에 펴낸 두 번째 장편소설 '파괴자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를 배경으로 한다. 보통 전쟁은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소설 속 전쟁터는 아군과 적군이 따로 없다. 등장인물의 욕망과 이익,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아군과 적군이 뒤섞이고 교차한다. 그래서 진짜 같은 현실로 느껴진다.

그 가운데 오직 동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든 K가 있다. K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농담 한마디를 꼭 던지고야 하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다.

작품을 술술 읽히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마을을 지배하는 세력들과 초대된 용병들 사이의 복잡한 욕망 관계는 역동성을 부가한다. 저택의 주인인 부인과 손자들은 고위 권력층과 결탁해 부정한 수법으로 부를 모으는 악당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용병들은 돈, 신념, 살인, 사랑 등 각각의 이유로 총칼을 들었다.

작품 곳곳에 배치된 오마주를 발견하는 것도 재미다. 캐릭터 설정부터 대화, 액션까지 작가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 영화, 드라마의 명장면들이 숨어 있다. 독서와 영화감상이 취미인 독자라면 흥미로운 부분이다. 〈다산북스·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널 위한 문화예술

오대우 외 지음

예술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또한 예술가는 다른 예술가와 어떤 점이 달랐고 자신만의 영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예술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떤 화가의 작품인지 몰라도 그림을 탐미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널 위한 문화예술'을 펴낸 오대우, 이지현, 이정우가 그들. '미술관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친절한 예술가이드'라는 부제답게 이들은 어디든 존재하는 '예술의 순간'을 보여준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40여 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오대우, 이지현, 이정우는 예술을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클림트, 마크 로스코, 뭉크, 호퍼 등 예술가 24명의 이야기와 명화에 얽힌 스토리를 깊이있게 다뤘다.

1부 '명화의 비밀'에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작품 해설뿐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이야기하며 명화의 숨겨진 이면을 파헤친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모나리자'가 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됐는지 세잔의 사과 정물화는 왜 인류 3대 사과로 불리는지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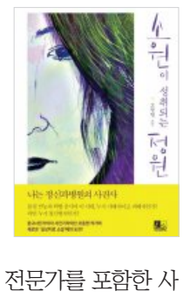
2부 '예술가의 이유'에서는 작가들의 삶의 태도와 신념이 모티브다. 마티스는 왜 행복해 보이는 그림을 그렸으며 뒤샹은 왜 갑자기 체스 챔피언이 되었는지 등 그 시대 작가들이 무엇을 말하고 이야기했는지 들여다본다.

책을 읽다보면 미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우리들 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 저자들은 독자들이 '예술은 잘 모르겠다'는 부채감에서 벗어나 좀더 편하게 예술에 다가가길 바란다. 〈웨일북·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원이 성취되는 정원

오동명 지음



한 정신과의사가 환자들을 예술로 치유하기 위해 사진가를 고용한다. 50대의 목사부인과 40대 여성, 20대 초반의 대입재수생이 치료를 받는데 이들의 정신적 질환은 사실 현대의 모두가 겪는 물리적 정신적 생활불안정 또는 압박, 구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광고 사진가이자 사진기자 출신인 오동명의 신작 장편소설 '소원이 성취되는 정원'은 물질 만능과 학벌 중시의 이 시대,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의문을 던진다. 저자는 등장인물들을 환자로 몰고 있는 가족이나 의사, 예술가, 검사, 종교 등 소위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는 과연 온전한가에 대해 진단하며 오히려 이들이 정신질환의 원인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언론은 선정적인 제목이나 사진으로 국민들이 곡해하고 오해하기 쉽게 조작, 악용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요즘 세태를 비웃듯, 터무니없는 압수수색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도 눈에 띈다. 사진 또는 미술로써 치유되는 과정에서 찾게 되는 자아는 환자만이 아니다. 치료사인 의사나 치유자로 참여한 사진가는 타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얻게 된다. 암울한 현실을 예리하게 담고 있지만 이 소설은 결국 따뜻한 사랑이야기이라는 것.

'죽음과 별', '심상사진', '따뜻한 손', '삶이 다하는 날까지' 등 총 4부로 구성된 책에는 중간중간 '심상치유'의 매개가 되는 사진 그림 음악 등이 두루 담겼다. 고르키의 '소원이 성취되는 정원', 루치안 프로이트의 '흰 개와 함께 있는 여인', 캘러헌의 '엘레노어' 등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도 볼 수 있다. 〈멘토프레스·1만26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